

공동관심사 나눔

1. 오늘 일정 안내

- **대면예배 참석 안내**
- 다음 주일은 명동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목회실과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7월부터 서울YWCA(4층)에서 갖는 대면예배는 2부제로 참석을 권유합니다. 홀수(1/3) 주일은 청어/청남 신도회, 짝수(2/4) 주일은 3청(새청/청신/희청)에서 참석합니다.
- 정부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신도회원(회여, 회남, 장여, 장남)은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성령의주일/남북화해주일** : 하늘뜻펴기(오완석, 임송이), 찬양(새청/청신), 예배위원(희청)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쿼어-페미니즘 워크숍** : 오후 2시, 어린이부실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생태문화선교팀** : 저녁 8시, 온라인(ZOOM)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음악선교팀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 : 6월 30일(수)까지 연장,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
- **들녘농산물 판매** : 백미, 현미, 들깻가루 주문받습니다. 쌀은 6월 22일에 도착하고, 23일 택배 발송 예정입니다. (문의: 이옥희 권사 010-4872-4821)

2. 이번 주 일정 안내 : 6월 21일(월)~6월 27일(일)

- **새청 인문공화국** : 6월 22일(화), 저녁 7시, 내자동 사무실, 온/오프라인 병행, 『한국 평화학의 탐구』(서보혁), 문의 : 유 건 교우(010-5154-9202)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통일선교분과** : 6월 23일(수), 저녁 7시 문화공간 온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 6월 23일(수), 저녁 8시, 온라인(ZOOM)
- **임시 당회** : 6월 24일(목), 저녁 7시, 내자동 사무실
- **명동주민과의 송별모임** : 6월 25일(금), 저녁 7시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쿼어-페미니즘선교팀** : 6월 25일(금), 저녁 8시, 온/오프라인 병행
- **교회 정리** : 6월 26일(토)
- **명동에서의 마지막 예배** : 6월 27일(일)
- **목회운영위원회** : 6월 27일(일), 오후 2시, 향우실, 온/오프라인 병행
-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 『갑과 그리핀의 과정신학-입문적 해설』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 **이번 주 성서일과** : 사무엘기하 1:1, 17-27, 고린도후서 8:7-15, 마가복음서 5:21-43

3. 이후 일정 안내

- **교회 이사** : 6월 28일(월), 컨테이너 보관 및 향린 수양관으로 물품 이동
- **수요영성기도회** : 6월 30일(수), 저녁 7시 30분, 3층 예배실
- **임시예배처소** : 7월 첫 주일(4일)부터 예배드리는 장소는 서울YWCA입니다.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성인 예배: 4층, 교육부 예배: 5층)

4. 에큐메니칼 소식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 “공대위 출범 및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6월 21일(월), 오후 2시, 광화문 감리교 본부 앞
- **한미교회협의회(7차)** : 6월 25일(금), 오전 9시(한국-미국, 온라인)
- **기독교사회운동 공동정책협의회** : 6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 **서울노회 임시노회** : 7월 1일(목), 오후 3시 30분, 초동교회
-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대행진** : 4월 27일(화)~7월 27일(화), 부산~임진각(성남 정지역 통과)

5. 감사헌금

강수혜(아들 공학박사 학위), 권영재(감사), 김남기(법사), 김지수A(감사), 남원미/고대연(가족 건강), 노재열/강정구(향린 광화문 시대), 이병희(명동성전 마감예배), 정새미/정준재, 훗불혁명완성책불연대(교회물품나눔)

온라인헌금안내 : KEB 하나은행 024-22-02085-6 향린교회(입금 시 이름/목적 명기)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

2.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화나눔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목 / 회 / 마 / 당

<“남북철도 잇기는 민족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남북철도추진위, 부산역서 550km 대행진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7일 오전 10시 부산역 광장에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출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정에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평화철도, 희망래일, 평동사, 평화통일시민연대, 향린교회 등 96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이곳을 출발해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남북철도가 끊긴 곳 임진각까지 장장 90일, 550km에 걸쳐 남북철도 잇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끌고 밀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대행진 출발을 선언했다.

추진위는 특히 “미국이 남북철도 연결을 좌지우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레 앞에 천명한 대로 남북철도 잇기는 민족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미국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수동적이고 소신 없는 자세로는 남북철도 잇기는 백년 하청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미국에 맞서 남북철도 잇기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며서 “평화·통일열차가 남북을 오가고 유라시아로 달려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상징물을 앞세우고 대행진을 시작했고, △부산 경남 구간(4.27~5.8) △대구 경북 구간(5.9~5.27) △대전충청 구간(5.28~6.22) △경기남부 구간(6.23~7.7) △수도권/서울 구간(7.8~7.27)을 거쳐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임진각에서 마무리 행사를 할 예정이다.

(4월 27일 오전 10시 부산역 광장에서 출발, 44일 차 성남 정지역 통과)